

사회적 가치 지향, 주관적 지식, 정치적 성향이 원자력 관리 기관 신뢰도, 원자력 발전 기술 태도,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형민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부교수**

이진균 홍익대학교 광고홍보학부 부교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최근 들어 사회적 논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여론 형성과 변화의 기제를 보다 개인적이고 미시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기획되었다.

방법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사회적 가치 지향, 주관적 지식, 정치적 성향을 원자력 발전에 대한 다양한 심리 반응들의 예측 변인으로 상정하고 전국 규모의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통계 분석하였다.

결과

주관적 지식은 원자력 관리기관 신뢰도, 원자력 발전 기술 태도,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다 훨씬 긍정적인 신뢰도, 태도, 행동 의도를 표명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한편, 친자기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친사회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다 더 높은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를 표명하고 있음이 발견되어 사회적 가치 지향의 주효과도 일부 검증되었다. 주관적 지식과 정치적 성향 간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도 확인되었는데, 특히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주관적 지식이 신뢰도, 태도, 행동 의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더욱 크게 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국가 에너지 정책과 연관되어 사회적으로 격화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찬반 여론의 동역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KEYWORDS 원자력 발전, 여론, 사회적 가치 지향, 주관적 지식, 정치적 성향

* 본 연구는 2018년도 후기 성신여자대학교 교내 학술연구조성비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hmlee@sungshin.ac.kr, 제1저자

*** feature94@hongik.ac.kr, 교신저자

연구 목적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 수립 및 결정에 있어 원자력 발전은 항상 논쟁적인 화두였다. 국내에 발전소가 최초로 건립되어 원자력을 활용한 전력 생산이 시작되었던 1970년대 이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은 사회적 공론장 내에서 끊임없는 담론 경쟁을 거듭해 왔다(Kim, Chung, & Chang, 2013). 하지만 경제적 효율성, 전력의 안정적 공급 등을 논리적 기반으로 하는 원자력 발전 찬성 측과 치명적 안전사고로부터의 자유,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통한 대체 가능성 등을 내세우는 원자력 발전 반대 측 사이 견해 차이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Lee, Kim, & Kim, 2015).

국가 에너지 정책으로서 원자력 발전 이슈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렵고, 이로 인해 원만한 정책 집행이 쉽지 않은 데에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김병준, 2020; 윤순진, 2018). 하지만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원자력 발전 관련 이슈가 고도로 정치화되어있는 맥락 속에서 다양한 가치관과 이데올로기가 내재되어 있는 담론이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을 좁히기가 쉽지 않다(Chang & Kim, 2014). 일련의 실증적인 연구들에 따르면, 대한민국 언론 기관들은 각자의 정파적 성향(보수 또는 진보)에 따라 상이한 논조의 원자력 관련 기사들을 양산하고 있고(Choi, 2016; Jueng, Jang, Ko, & Park, 2016; Kim & Lee, 2005; Park, Lee, & Han, 2014), 각자의 정치적 성향 및 가치관에 따라 특정 언론사의

뉴스에 스스로를 선택적으로 노출시키는 수용자들은 원자력에 대한 인식, 태도, 행동 의도 등이 편향적으로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Kim, 2017; Lee & Park, 2019). 이러한 현상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에서는 원자력 발전 관련 이슈가 가치내재적인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사회적 신념에 따라 국민 여론이 양극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Chang, 2016; Kim, Lee, & Cho, 2011).

원자력 발전에 대한 찬반여론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2017년 새로운 정부가 발표한 탈원전 중심의 국가 에너지 정책 기조 발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위원회의 활동 및 국민 의견 수렴, 그리고 가장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등 관련 이슈들이 시시각각 등장함에 따라 더욱 첨예하게 대두되고 심화되어 왔다(Choi, 2018; Kwon & Jun, 2015). 원자력 발전 관련 이슈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갈등 이슈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 사이에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여 그 간극을 좁히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이슈로 인식되고 있다(Kang, 2018; Lim & Kim, 2020). 또한 실증적 연구에 의하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한국수력원자력 비리 사건, 해외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공사 수주 등 중요한 원자력 발전 관련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우리 국민들의 여론은 매우 극적이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Jin, 2012; Kim & Yun, 2010; Lim & Kim, 2018). 따라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개인 인식의 형성과 심화에 미치는 다양

한 요인들을 분석하는 학문적 접근 방법을 통해 여론의 기제와 동역학을 이해하는 시도는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개인 심리적 변인들이 원자력 관리기관 신뢰도, 원자력 발전기술 태도, 그리고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해 봄으로써 작금의 원자력 발전 관련 여론 형성과 변화의 기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하고, 대한민국 원자력 여론 지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세 가지 개인 심리적 변인들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첫 번째는 개인의 사회적 가치 지향(social value orientation)이다. 사회적 가치 지향은 개인의 성격과 가치관이 투영된 심리적 변인으로 알려져 있으며(Yang & Yoon, 2013), 사회적으로 제한된 재화를 자신과 타인 사이에서 나누는 과정에서 비교적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개인적 선호라고 정의할 수 있다(Messick & McClintock, 1968). 사회적 가치 지향을 개념화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한 일련의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친자기적 지향(proself orientation)과 친사회적 지향(prosocial orientation)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예를 들면, Eisenberger, Kuhlman, & Cotterrell, 1992; Sen & Bhattacharya, 2001; Van Lange & Liebrand, 1991). 또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 지향은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이 상충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2006).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개인의 사회적 가치 지향이 원자력 관리기관

에 대해 형성하는 신뢰도, 원자력 발전 기술에 대한 태도, 그리고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두 번째 변인은 주관적 지식(subjective knowledge)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지식을 개인이 원자력 발전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 있다고 믿는 정도라고 개념적으로 정의하였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간형을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 하는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특정 분야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지식은 해당 분야에 대한 개인의 감정적, 행동적 반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Lee, Kim, & Choi, 2010; You, Park, & Jin, 2016). 원자력 발전 이슈 관련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도 주관적 차원에서 형성되는 개인 지식의 수준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실증적으로 검증된 바 있다(예를 들면, Chung, Mok, & Kim, 2018; Ko & Kim, 2016; Lee & Lee, 2011; Park & Kim, 2015). 따라서 본 연구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주관적 지식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개인의 인식, 태도, 행동의도 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 가정하고 이러한 개인적 차원의 변인이 가져오는 주효과와 다른 변인과의 상호작용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분석적 초점을 경도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원자력 발전 관련 이슈는 정치적으로 맥락화 되었고,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원자력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과 관점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

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의 정치적 성향(보수 또는 진보)이 원자력 관리 기관 신뢰도, 원자력 발전 기술 태도,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 등에 미치는 독립적 효과, 여타 변인들과 상호작용적으로 발생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서 점차 정치화, 가치내재화 되어 가고 있는 원자력 발전 관련 여론 형성의 역동적인 구조를 규명함과 동시에 학문적, 실무적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에너지 정책으로서의 원자력 발전과 여론 지형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충 중심의 국가 에너지 정책 기조는 현재까지도 많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다(오인화, 2017).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시행되었던 공론화위원회는 당시 신설 중이었던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제 5호기와 제6호기에 대한 건설 중단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됨으로써 원자력 발전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쟁을 재점화시킨 바 있다(Hyun & Moon, 2019). 약 석 달에 걸쳐 진행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건설을 재개하되, 탈원전을 목표로 점진적인 원자력 발전소 건설 축소를 지향할 것을 최종적인 권고 사항으로 도출하였고, 정부는 이러한 권고 사항을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Hong, 2019). 이러한 결정은 원자력 발전을 옹호하는 측으로부터의 거센 반발을 야기하였고, 현 정부의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단초가 되었다(Choi, 2018).

이러한 최근 사례에서도 관찰되듯 대한민국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찬반 토론이 원자력 발전 자체에 대한 합리적, 이성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종종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및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는 이유는 원자력 발전 이슈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정치화되고 가치 내재적인 사안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Chang, 2016; Lim & Kim, 2018). 과거 경제 성장 및 에너지 수급 안정성을 우선 과제로 삼은 소위 보수 정권들은 원자력 발전에 대해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정책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구사하였다(Kang, 2012). 반면, 현 정부를 포함한 소위 진보 정권들은 환경 보호 및 국민 불안 등을 근거로 원자력 발전에 대해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정책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Kil, Yoon, & Lee, 2019). 이러한 맥락 속에서 국가 에너지 정책으로서의 원자력 발전은 정치 이데올로기의 관점으로 조명되어 왔으며,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Chang & Kim, 2014; Joo, 2018). 당연한 수순이지만 원자력 발전을 둘러싸고 정치화된 사회적 담론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의 장단점 비교를 통한 합리적, 이성적 판단 외에도 인구통계학적 특성, 정치적 성향 등에 따라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 상이한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Park, Hwang, & Kim, 2017).

몇몇 실증적 선행 연구들은 언론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원자력 발전 관련 기사의 논조 차이와 수용자들의 선택적인 노출을 근거로 정치화, 양극화된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 여론지형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뉴스 기사는 일반 국민들이 원자력 발전 관련 정보와 지식을 얻는 가장 보편적인 경로 가운데 하나인데(Han & Kim, 2011; Kim, 2012), 대한민국에서는 언론이 표방하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원자력 발전 관련 기사의 전반적인 논조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증적 선행 연구들에 의해서 일관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같은 원자력 발전 관련 사안이라도 소위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표방하는 언론에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논조의 기사가 많이 발견되는 반면, 소위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표방하는 언론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논조의 기사가 많이 게재된다는 점이다(Lee, 2017; Park et al., 2014; Shin, Keum, & Chung, 2012).

한편, 뉴스의 틀짓기 효과를 고려할 때, 이렇게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상이하게 구성되는 뉴스 기사는 각각의 언론을 통해 현실을 이해하는 수용자들의 인식체계에 영향력을 미친다(Kim & Yun, 2010). 뿐만 아니라 수용자들은 자신의 성향과 취향에 맞는 언론사의 뉴스만을 선택하고 스스로를 노출시킴으로써 특정 사안에 대한 인지적, 감정적 편향성을 갖게 된다(Lee & Park, 2019; Roh & Min, 2012). 이러한 현상이 종합적으로 발현되어 스스로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로 보수 성향 언론 매체를

통해 원자력 발전 관련 기사에 노출되고,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로 진보 성향 언론 매체를 통해 원자력 발전 관련 기사에 노출된다(Kim, 2017). 또한 정파적 성향별로 상이하게 구성되는 뉴스 기사의 논조 때문에 보수 성향 언론 매체를 주로 이용하는 수용자들은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게 되고, 진보 성향 언론 매체를 주로 이용하는 수용자들은 원자력 발전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Lee, Park, & Han, 2015).

개인적 차원의 변인들이 원자력 발전 관련 심리 반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가치 지향

앞서 살펴 본 원자력 발전 이슈의 정치화, 언론의 편향성, 선택적 노출의 효과 등 거시적, 중시적 차원의 영향 요인들 외에도 보다 미시적인 개인 차원의 특성이 원자력 발전에 관한 다양한 심리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선행 연구들은 개인의 가치 판단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성로(Lee, 2006)는 탈물질주의, 신자연주의 등의 개인적 가치관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선호와 정책 지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신해정 외(Shin et al., 2012)의 연구에서도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는데, 해당 연구에 따르면 탈물질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원자력 발전 이슈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유연재와 김서용(Yoo & Kim, 2015)은 과학적 낙관주의, 환경주의 등 개인의 가치관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위험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과학적 낙관주의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감소시킴으로써 개인의 원자력 수용성을 높였으며, 환경주의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각된 위험 인식을 높임으로써 개인의 원자력 수용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는 개인의 가치 판단에 해당하는 변인으로 사회적 가치 지향에 주목하였다. 사회적 가치 지향은 원자력 관련 선행 연구들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변인이지만, 환경, 위험, 보건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연구에서는 활발하게 논의되어 온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예를 들면, Kim & Park, 2002; Murphy & Ackermann, 2014; Sutterlin, Brunner, & Siegrist, 2013). 사회적 가치 지향은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호 작용 속에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 간 자원 분배의 방법을 결정하는 개인의 비교적 일관된 기질 또는 성향을 의미한다(Bogaert, Boone, & Declerck, 2008). 한정된 사회적 재화를 본인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배분하는 과정 속에서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공동체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인지 결정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성향은 개인의 성격적, 심리적 특성이 종합적으로 발현되어 나타나게 된다(Kuhlman & Wimberley, 1976). 즉, 사회적 가치 지향은 어떠한 개인이 사회적인 재화를 공유하고 분배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개념이자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사회적 가치 지향은 특히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개인의 생각, 태도, 행동 등을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유용한 변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사회적 가치 지향은 개인이 본인과 다른 사람들 간 자원 분배의 결과를 예측하고,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생각, 태도, 행동 등의 동기를 유발하기 때문이다(Murphy, Ackermann, & Handgraaf, 2011).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사회적 가치 지향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Van Lange, 1999). 우선 자원 분배에 있어서 본인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원을 획득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두는 경향의 사람들은 친자기적 지향 인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친자기적 지향을 지닌 사람들은 개인적 이득의 극대화, 자기 목표 달성 등이 지상 최대의 과제이자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모든 생각과 행동이 그러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경주되는 경향이 있다(Kim, 2006). 반면, 본인과 다른 사람들 간 공평한 자원 분배와 공존을 통한 상호 호혜적 관계 유지에 중요한 가치를 두는 경향의 사람들은 친사회적 지향 인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친사회적 지향 인간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 간 이득 차이를 최소화함으로써 최대한 평등주의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Kim, 2013).

사회적 가치 지향의 이론적 유용성은 많은 선행 연구들에 의해 실증적으로 검증된 바 있다. 특히 사람들의 친사회적, 친환경적 행위를 설명하고

예측하고자 하는 연구들에서 사회적 가치 지향에 주목하는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영주와 여운승(Lee & Yeo, 2014)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가치 지향을 친환경 식자재 구매의도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상정하였다. 친환경적으로 가공된 식자재는 환경 보호에 기여함으로써 사회 공동체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지만, 친환경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가공된 식자재보다 가격이 비싸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친자기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금전적인 동인에 의거하여 친환경 식자재 구매의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지만, 친사회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환경보호 동인에 따라 친환경 식자재 구매 의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김지경(Kim, 2006)의 연구에서는 친사회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친자기적인 성향의 사람들 보다 공동체의 모금 행위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즉, 친사회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신의 몫을 희생하는 경향을 더욱 강하게 내재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반적으로 친사회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친자기적인 성향의 사람들 보다 친환경적인 행위에 동참하고 협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예를 들면, Kim, 2013; Kim & Lee, 2009; Lee, 2011; Park & Jeong, 2006).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에서 원자력 발전은 물질주의/탈물질주의, 개발주의/보호주의, 과학주의/자연주의 등의 대립적인 가치와 이념들이 내재되어 있는 사안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Lee, 2006).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에서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태도가 상이하게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의 기질적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지향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심리적 반응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선행 요인으로 상정하고자 한다.

주관적 지식

특정 주제나 대상에 관한 지식은 해당 객체에 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지식에 관한 연구는 심리학, 마케팅, 소비자 연구 분야 등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잘 발달된 지식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Hershey & Walsh, 2000; Wood & Lynch, 2000). 지식이 높은 사람들은 대상이나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속성을 바탕으로 정교화된 정보처리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의 유사성을 고려한 관계적 정보 처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지식이 높은 사람들은 지식이 낮은 사람들과 비교해 속성 중심의 정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주변 단서나 문맥 효과에 덜 영향을 받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지식이 낮은 사람들은 정보 처리를 위한 능력과 동기가 결여되고 제한된 지식 체계로 인해 속성 중심의 엄격한 정보 처리가 어렵다. 이로 인해 지식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 외적 단서나 경험치를 이용한 평가에 의존하게 된다.

지식은 크게 객관적 지식(objective knowledge)과 주관적 지식(subjective knowledge)으로 나뉘 볼 수 있다. 객관적 지식은 기억 체계에 저장된 특

정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속성이나 정보를 뜻하는 사실적 지식인 반면, 주관적 지식은 사람들이 특정 대상에 대해 스스로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적 평가, 주관적 확신 또는 알고 있다는 느낌을 의미한다(Alba & Hutchinson, 2000; Brucks, 1985). 이런 점에서 주관적 지식은 개인이 스스로 지각하고 있는 지식의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Park & Kim, 2015). 한편, 이들 두 지식 차원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정보 탐색과 처리에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 객관적 지식은 개인의 선택에 대한 평가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주관적 지식은 인지적 노력을 최소화하고 효율적, 전략적인 평가를 위한 경험 법칙(rule-of-thumb)이나 휴리스틱 정보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대체로 주관적 지식수준이 낮을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외부 정보를 탐색하지만, 주관적 지식수준이 높을 경우 기존 지식 체계에 저장된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다(Alba & Hutchinson, 1987).

최근 연구 동향을 고찰해 보면 원자력 관련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원자력 관련 지식의 증가가 원자력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견된다. 먼저, 정원준 외(Chung et al., 2018)의 실험 연구에서는 원자력 정보원, 원자력에 대한 객관적 지식, 거주 지역이 원자력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정보원 주체(사회과학자 또는 자연과학자)와 무관하게 긍정적 메시지 대비 부정적 메시지는 이해관계자의 원자력 수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동일한 정보 제공자와 메시지라 하더라도 원자력에 대해 실제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객관적 지식수준에 따라 그 영향은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객관적 지식수준이 높은 집단의 사전 및 사후 수용도가 지식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원자력 관련 지식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원자력에 대한 주관적 지식이 위험 지각, 정부 신뢰 및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이민창, 안주아, 그리고 김유미(Lee, Ahn, & Kim, 2018)의 연구 역시 원자력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위험 지각이 낮으며 원자력 규제에 대한 정부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위험 지각과 정부 신뢰도는 원자력 수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두 변인이 원자력에 대한 주관적 지식과 수용성의 관계를 완전 매개함을 규명하였다. 한편, 김근식(Kim, 2019)은 객관적 원자력 지식수준이 높아질수록 원자력 수용성이 함께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원자력 지식이 높을수록 편익 인식과 원자력에 대한 정부 신뢰가 높아진다고 했으나, 동시에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감정도 증가한다고 하였다. 상호작용 분석 결과 흥미롭게도 객관적 원자력 지식이 낮은 집단에서 편익 인식이 높아질수록 원자력 수용성이 더 크게 증가했으나, 객관적 원자력 지식이 높은 집단에서 부정적 원자력 감정이 커질수록 원자력 수용성이 덜 감소해 부정적 감정의 효과를 완화시키는 것을 밝혔다. 전체적으로, 인구학적 요인, 편익 인식, 위험 인식 등을 통

제했을 때 객관적 원자력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원자력 수용성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원자력 지식과 수용성에 따른 대학생들의 원자력 발전 인식에 대해서 연구한 고대유와 김영곤(Ko & Kim, 2016)은 원자력에 대한 객관적 지식 수준이 증가할수록 원자력에 대한 경제성 인식과 차세대 원자력 수용성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을 밝혔다. 이들은 차세대 원자력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객관적 지식은 물론 편익과 안전성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현주와 이영애(Lee & Lee, 2011)는 원자력 발전소와 방폐장 낙인에 미치는 신뢰, 감정 그리고 주관적 지식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관적인 차원에서의 지식이 높을수록 이익 지각이 증가한 반면, 낙인 반응에는 부정적 영향력이 행사됨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즉, 개인이 방사능에 대해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원자력이 제공하는 전기에너지의 혜택 및 안전성 등 긍정적 이익을 높게 평가함과 동시에 원자력이 가진 불명예스러움이나 비도덕성 등의 낙인 반응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원자력에 대한 정보와 혜택 등의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일반인의 지각된 이익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개인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 지식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다양한 심리 반응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특히 개인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차원의 지식수준에 분석적 초점을 두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가치 지향과 함께 주관적 지식을 원자력 관리 기관에 대한 신뢰도, 원자력 발전 기술에 대한 태도,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으로 상정하고자 한다.

정치적 성향

본 연구에서 사회적 가치 지향, 주관적 지식과 함께 분석적인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변인은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원자력 발전 관련 이슈가 고도로 정치화되어 있고, 많은 실증적 연구들을 통해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가 검증된 바 있다.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원자력 발전 관련 인식, 태도,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개인의 가치관과 정치 성향 간의 상관관계이다. 개인의 정치 성향은 개인의 가치관을 투영한다(Byeon, 2014). 어떠한 사람이 보수적인 또는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갖고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보수적인 또는 진보적인 가치관을 옹호하고 내재화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Kim & Lee, 2006; Lee, Rhee, & Chung, 2015). 주지하다시피 원자력 발전은 다양한 가치관과 이데올로기가 상충하는 사회적 이슈이다.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 개발주의와 보호주의, 과학주의와 자연주의 등 다양한 가치관들이

경쟁하는 사회적 담론 속에서 개인이 선호하는 정치 성향은 자연스럽게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식, 태도, 행동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Lee, 2006).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과학의 가치를 신봉하고, 개발과 발전을 통한 인류의 복지 증진을 선호한다. 반면,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연과 환경의 보전 및 인간 사회와의 조화를 중시하고, 물질적인 번영과 경제 성장 우선주의에 거부감을 표시한다(Milbrath, 1984). 즉, 사람들은 각자의 정치 성향에 따라 원자력 발전이 갖고 있는 여러 특성들을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내재하고 있다.

두 번째 근거는 정치화되고 양극화된 대한민국의 언론 보도 행태와 담론 지형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대한민국에서 형성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 관련 사회적 담론은 이미 정치 편향적이고 양극화되어 있다. 보수적인 정치 성향의 언론 매체들은 원자력 발전의 경제적 합리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 원자력 발전에 호의적인 뉴스 기사를 생산하고 있고, 진보적인 정치 성향의 언론 매체들은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과 대체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원자력 발전에 비판적인 뉴스 기사를 생산하고 있다(Park et al., , 2014). 또한 언론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론장 속에서 일반 국민들은 자신의 정치 성향에 부합한다고 생각되는 정보에만 스스로를 노출시킴으로써 정보의 편식과 인식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Kim, 2017; Lee et al., 2015). 결국 개인의 정치 성향이 선택적 노출과 원자력 발전

에 대한 인식의 양극화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연구는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원자력 관리 기관 신뢰도, 원자력 발전 기술 태도,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에 미치는 주효과와 사회적 가치 지향, 주관적 지식 등과 함께 상호작용적으로 행사하는 효과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속 변수에 대한 고찰 및 연구문제 도출

원자력 관리 기관 신뢰도

개인의 원자력 관리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원자력 발전 여론에 관한 연구에서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져 왔다. 왕재선(Wang, 2013)의 연구에서는 한국 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대한 신뢰를 인지적 신뢰와 정서적 신뢰로 구분하고, 각각의 신뢰가 개인의 원자력 수용성에 어떤 영향을 행사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한수원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신뢰 모두 원자력 수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원자력 관리 기관인 한수원에 대해 강한 신뢰를 느끼는 사람일수록, 본인이 주거하는 지역에 설립된 원자력 발전소의 유지, 추가적인 발전소 건설, 핵폐기장 시설물 설치 등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송해룡과 김원제(Song & Kim, 2015)의 연구에서도 원자력 발전소 운영 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원자력 위험 인식은 낮아지는 반면, 위험 수용도는 높아진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개인적인 차원의 신뢰가 전반적인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용성을 높인다는 의미

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개인 차원의 변인들인 사회적 가치 지향, 주관적 지식, 그리고 정치적 성향이 원자력 관리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우선 사회적 가치 지향과 관련하여, 원자력 발전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물질주의/탈물질주의, 개발주의/환경주의 등의 가치 내재적인 성격을 띠게 되면서 친사회적 또는 친자기적인 성향의 사회적 가치 지향에 따라 원자력 발전 기관에 대한 개인의 신뢰도도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회적 가치 지향의 이론적인 개념과 실증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친사회적 성향의 사람들은 탈물질주의와 환경주의에 입각하여 원자력 발전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확률이 높고, 친자기적 성향의 사람들은 물질주의와 개발주의에 따라 원자력 발전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질 확률이 높다(Kim, 2005). 그리고 이러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원자력 관리 기관에 대한 신뢰도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높다(Kim, Kim, & Lim, 2012).

원자력 발전에 대한 주관적 지식 또한 원자력 관리 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잘 알고 생각할수록 원자력 발전 기술,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관리 기관 등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주관적 지식은 원자력 전반에 대한 신뢰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ark, Chang, &

Kim, 2017). 즉, 주관적 지식이 높을수록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신뢰 또한 높게 형성된다는 의미이다. 박천희와 김서용(Park & Kim, 2015)의 연구에서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주관적 지식이 높을수록 원자력 관리 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원자력 발전 수용성이 높게 나타남이 규명되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담론이 정치적인 맥락에서 소비,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인의 정치적 성향 또한 원자력 관리 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인식을 갖는 반면,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비교적 부정적이고 비호의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예를 들면, Chung et al., 2018; Kil et al., 2019; Lee et al., 2015).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원자력 관리 기관에 대한 신뢰도 사이에는 일련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탐색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가치 지향, 주관적 지식, 그리고 정치적 성향이 원자력 관리 기관 신뢰도에 미치는 다양한 상호작용 효과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참고할 만한 이론 또는 실증적 선행 연구가 부족하여 각 변인들 간 상호작용 효과의 유무 또는 상호작용 효과의 방향성 등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분석적 시도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원자력 관리 기관 신뢰도의 형성 기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모든 분석적 고려 사항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1: 사회적 가치 지향, 주관적 지식, 정치 성향은 원자력 관리 기관 신뢰도에 어떠한 주효과 또는 상호작용 효과를 미치는가?

원자력 발전 기술 태도

태도는 특정한 대상 또는 사안에 대하여 개인이 견지하는 부정적, 긍정적, 또는 중립적 감정을 의미하는 개념이다(Kim, 2015).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특정한 대상 또는 사안에 대한 인지적 인식이 태도라는 감정 형성 및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Ko & Kim, 2016; Park & Lee, 2018). 또한 계획행동 이론에 따르면 태도는 개인의 행동 의도 또는 실제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행 요인들 가운데 하나이다(Cha, 2005). 이러한 태도의 개념적 특성과 의의 때문에 일련의 원자력 발전 관련 여론 연구에서도 태도는 중요한 변인으로 여겨져 왔다. 예를 들어, 이형민과 박진우(Lee & Park, 2019)의 연구에 의하면 원자력 발전 기술 태도는 원자력 관리 기관인 한수원과의 조직-공중 관계성 인식과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를 매개하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개인이 원자력 관리 기관으로서 한수원에 대해 긍정적인 조직-공중 관계성을 인식한다면 원자력 발전 기술에 대해 보다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고, 원자력 발전 기술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가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의 사회적 가치 지향에 따라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원자력 관련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면, 사회적 가치 지향은 원자력 발전 기술 태도에도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행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친사회적 성향의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면 원자력 발전 기술 태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마찬가지로 친자기적 성향의 사람들은 원자력 발전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질 확률이 높다.

주관적 지식도 원자력 발전 기술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주관적 지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원자력 발전에 대한 위험 인식은 낮아지고 위험 수용성은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이 호의적으로 형성된다(예를 들면, Kim, 2012; Kim, Chung, & Chang, 2013).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주관적 지식이 원자력 발전 기술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성향 또한 원자력 발전 기술과 유의미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수 있다. 여러 연구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특히 대한민국에서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성향의 연속선상에 따라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이 상이하게 분포되어 있다면 개인의 정치적 성향은 원자력 발전 기술에 대해 생각하는 감정적인 평가인 태도에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예를 들면, Hwang, Kim, & Chang, 2018).

본 연구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인의 사회적 가치 지향, 주관적 지식, 그리고 정치적 성향이 원자력 발전 기술 태도에 미치는 각각의 주효과와 탐색적인 차원에서 각 변인들이 형성할 수 있는 상호작용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2: 사회적 가치 지향, 주관적 지식, 정치 성향은 원자력 발전 기술 태도에 어떠한 주효과 또는 상호작용 효과를 미치는가?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

계획행동 이론에 따르면 행동 의도는 행동을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변인이다(Sohn & Lee, 2012). 합리적, 경제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간을 전제한다면 특정한 행동에 대한 의도는 실제 행동을 유도하고 제고하는 선행 요인이 될 수 있다. 결국 미시적인 차원에서 각 개인이 형성하는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는 거시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해 형성되는 여론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척도라고 할 수 있다(Lee & Park, 2019).

이러한 가정하에 본 연구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개인의 행동심리학적 찬성과 반대를 분석하기 위한 변인으로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 지향, 주관적 지식, 그리고 정치적 성향이 개인의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 수준을 결정하는 선행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가치 지향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과 감정 반응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면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 또한 개인의 사회적 가치 지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즉, 친사회적 성향의 사람들은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가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친자기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가 높게 나타날 확률이 높다. 주관적 지식수준에 따라서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가 상이하게 형성될 가능성 또한 개연성이 있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 일관적으로 검증된 주관적 지식의 역할을 고려할 때, 주관적 지식이 높을수록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 또한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예를 들면, Stoutenborough, Sturgess, & Vedlitz, 2013). 마지막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태도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상이하게 형성된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보수적인 정치 성향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가 높게 나타날 확률이 높고, 진보적인 정치 성향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가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예를 들면, Lee et al., 2015).

본 연구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 지향, 주관적 지식, 그리고 정치적 성향이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에 미치는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3: 사회적 가치 지향, 주관적 지식, 정치 성향은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에 어떠한 주효과 또는 상호작용 효과를 미치는가?

연구 방법

설문 조사 설계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문제 및 연구 가설의 실증적인 분석과 통계적인 검증을 위해 전국 규모의 설문 조사를 설계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전문 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온라인 설문 조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 조사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 거주 남녀 패널들에게 설문 조사 참여를 독려했다. 설문 조사 결과, 총 630명의 참여자들이 설문 조사에 응답하였다. 630명의 참여자들 가운데 남성은 308명(48.9%), 여성은 322명(51.1%)인 것으로 확인되어 여성 참여자가 다소 많은 가운데 비교적 비슷한 성별 분포를 보였다. 응답자들의 평균 연령은 42.8세($SD = 12.18$)였고, 최소 연령은 19세, 최대 연령은 56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 참여자들의 거주 지역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인구에 비례하여 경기도 거주자들이 가장 많았으며(151명, 24%), 그 뒤를 이어 서울(138명, 21.9%), 대구(43명, 6.8%), 부산(42명, 6.7%), 인천(39명, 6.2%) 순으로 나타났다.

변인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사회적 가치 지향

본 연구의 핵심적인 독립 변인들 가운데 하나인 사회적 가치 지향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 가장 많이 차용되었던 방법인 Decomposed Game(DG)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이 방법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 문항 간 신뢰도, 내적 타당도, 검사-재검사 안전성 등이 검증된 바 있다(Eisenberger et

al., 1992; Liebrand & Van Run, 1985; Yang & Yoon, 2013).

DG에서 설문 참여자들은 총 9개의 게임 시나리오로 구성된 일련의 질문에 응답하게 된다. 각 게임 시나리오는 본인과 다른 사람 간 한정된 재화를 분배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 참여자들은 각 시나리오에서 다른 사람보다 자신에게 더 많은 재화를 할당할지, 아니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양의 재화를 할당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각 게임 시나리오에서 다른 사람보다 자신에게 더 많은 재화를 할당하는 경우 친자기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간주하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양의 재화를 할당하는 경우 친사회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간주한다. 총 9개의 시나리오 가운데 6개 이상 일관된 결과가 나오면 해당 응답자의 사회적 가치 지향을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본 연구의 설문 조사에 참여한 총 630명의 응답자 가운데 친자기적인 지향을 보인 응답자가 총 235명(37.3%), 친사회적인 지향을 보인 응답자가 총 347명(55.1%)이었다. 반면, 48명(7.6%)의 응답자는 일관적인 사회적 가치 지향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어 결측 인원으로 산정하였다. 결국 총 630명의 설문 응답자 가운데 결측 인원 48명을 제외한 582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관적 지식

주관적 지식은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총 5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선행 연구들(예를 들면, Kim, 2012; Ko & Kim, 2016; Park & Kim,

2015)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도출된 문항은 ‘원자력 발전의 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장치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원자력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방사능에 대한 노출이 인체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원자력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노력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등 5개였다. 문항 간 신뢰도(Cronbach’s alpha)는 .834인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양호한 수준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한편, 통계 분석을 위해 전체 평균 값 3.76($SD = 1.14$)을 기준으로 주관적 지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구분하였다. 통계 분석에 사용된 전체 582명의 표본 가운데 주관적 지식이 높은 집단으로 구분된 응답자들은 총 258명, 주관적 지식이 낮은 집단으로 구분된 응답자들은 총 324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치 성향

정치 성향은 단일 문항을 사용하여 보수와 진보의 두 집단으로 유목화하였다. ‘귀하의 정치적 이념 성향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란 질문과 함께 보수와 진보 두 가지의 선택 사항만 제시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그들이 생각하는 본인의 정치 성향을 명확하게 표명하도록 하였다. 전체 표본 582명 중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보수적이라고 표명한 응답자들은 총 302명, 진보적이라고 표명한 응답자들은 총 28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 변인들

본 연구의 종속 변인들은 원자력 관리 기관에 대한 신뢰도, 원자력 발전 기술에 대한 태도, 그리고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 총 세 가지이다.

먼저 원자력 관리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총 6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선행 연구들(예를 들면, Kim, 2012; Ko & Kim, 2016; Park & Kim, 2015)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원자력 기술을 개발하는 과학자들은 신뢰할 만하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자력 관련 기업은 신뢰할 만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같은 규제 기관은 신뢰할 만하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기관은 신뢰할 만하다,’ ‘원자력 발전소 운영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원자력 발전소가 정부의 정책을 잘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와 같은 측정 문항들을 도출하였다. 문항 간 신뢰도(Cronbach’s alpha)는 .948인 것으로 나타나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원자력 발전 기술에 대한 태도는 7점 의미 분별 척도를 사용하여 총 3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Osgood, Suci, & Tannenbaum, 1957; Asplund & Norberg, 1993). 설문 참여자들은 ‘원자력 발전 기술’이라는 대상에 대해 ‘비호의적이다/호의적이다,’ ‘나쁘다/좋다,’ ‘부정적이다/긍정적이다’라는 세 가지 척도를 이용하여 각자의 태도를 표명하였다. 문항 간 신뢰도(Cronbach’s alpha)는 .934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는 7점 의

Table 1. Descriptive analysis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Groups	Mean	SD	N
Trust in Nuclear Power-Related Agencies	Social Value Orientation	Pro-socials	3.14	1.02	347
		Pro-selfs	3.19	1.34	235
	Subjective Knowledge	High	3.62	0.92	258
		Low	2.79	1.51	324
	Political Orientation	Conservative	3.37	1.17	302
		Progressive	2.93	1.05	280
Attitudes toward Nuclear Power Technologies	Social Value Orientation	Pro-socials	3.96	1.25	347
		Pro-selfs	3.99	1.36	235
	Subjective Knowledge	High	4.21	1.07	258
		Low	3.78	1.28	324
	Political Orientation	Conservative	4.36	1.25	302
		Progressive	3.55	1.20	280
Intentions toward Supporting Pro-Nuclear Power Policies	Social Value Orientation	Pro-socials	3.31	1.66	347
		Pro-selfs	3.66	1.57	235
	Subjective Knowledge	High	4.05	1.59	258
		Low	2.97	1.56	324
	Political Orientation	Conservative	4.22	1.67	302
		Progressive	2.90	1.42	280

Table 2. Levene's test

	<i>F</i>	<i>p</i>
Trust in Nuclear Power-Related Agencies	1.237	.214
Attitudes toward Nuclear Power Technologies	1.918	.257
Intentions toward Supporting Pro-Nuclear Power Policies	1.427	.228

Table 3. Box's test of equality of covariance matrix

Box's M	<i>F</i>	<i>p</i>
32.082	1.923	.581

미 분별 척도를 사용하여 총 3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Kim & Cha, 2016; Song & Lee, 2015). 설문 참여자들은 '나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가는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라는 진술문에 대해 '가능성이 낮다/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을 것 같다/그럴 것 같다,' '불가능하다/가능하다'라는 세 가지 척도를 이용하여 각자의 정책 지지 의도를 표명하였다. 문항 간 신뢰도(Cronbach's alpha)는 .960인 것으로 나타나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연구 결과

기술 통계 결과

본 연구는 독립된 집단으로 구분한 세 가지의 독립 변수들(사회적 가치 지향, 주관적 지식, 정치적 성향)과 연속 척도로 측정된 세 가지의 종속 변수들(원자력 관리 기관 신뢰도, 원자력 발전 기술 태도,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 간 관계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다변량 분산 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종속 변수들인 원자력 관리 기관 신뢰도, 원자력 발전 기술 태도,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 간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변량 분산 분석이 방법론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독립 변인으로 구분된 각 집단 간 종속 변인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Table 1>과 같다.

다변량 분산 분석(MANOVA) 결과

다변량 분산 분석 전제 검증

다변량 분산 분석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오차변량과 공변량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Levene 검증과 Box의 동질성 검증을 진행하였다(Choi, 2013). 우선 Levene 검증을 통해서 각 개별 집단이 같은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되었는지, 다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되었는지를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종속 변수들인 원자력 관리 기관 신뢰도, 원자력 발전 기술 태도,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 모두 통계적 유의확률이 .05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어 오차변량의 동질성이 검증되었다.

Box의 동질성 검증은 각 개별 집단의 공변량이 같은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분석 결과, 유의확률이 .05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개별 집단의 공변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같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다변량 분산 분석의 활용이 문제가 없음을 검증하였다(Choi, 2013).

다변량 분산 분석(MANOVA) 결과

다변량 분산 분석을 통해 사회적 가치 지향, 주관적 지식, 그리고 정치적 성향이 원자력 관련 기관 신뢰도, 원자력 발전 기술 태도, 그리고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Table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Wilks의 람다 계수를 바탕으로 검증했을 때, 특히 주관적 지식과 정치적 성향은 원자력 관련 기관 신뢰도, 원자력 발전 기술 태도, 그리고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행사하

Table 4.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Wilk's Lambda	F	Hdf	Edf	p
Social Value Orientation	.052	1.236	3	578	.147
Subjective Knowledge	.890	11.250	3	578	.000
Political Orientation	.583	12.612	3	578	.000

Table 5. Three-way analysis of variance (Trust in nuclear power-related agencies)

Source	Sum of Squares (SS)	Degree of Freedom (df)	Mean Squares (MS)	F
Model	118.789	7	16.970	13.097**
(Intercept)	5299.784	1	5299.784	4090.386**
Social Value Orientation(A)	1.903	1	1.903	1.469
Subjective Knowledge(B)	101.091	1	101.091	78.022**
Political Orientation(C)	17.672	1	17.672	13.640**
A X B	.160	1	.160	.124
A X C	.041	1	.041	.032
B X C	12.206	1	12.206	9.420**
A X B X C	.591	1	.591	.456
Error	743.714	574	1.296	
Total	6794.056	582		

* $p < .05$. ** $p < .01$

는 변수였다. 반면 사회적 가치 지향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변량 분석을 통해 확인된 주관적 지식과 정치적 성향의 영향력을 보다 정교하게 확인하고, 각 독립 변수들이 종속 변수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종속 변수별 삼원변량 분석(Thre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다변량 분석을 통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한 이후 종속 변수

별 변량 분석을 따로 실시하는 것이 통계적 신뢰도를 제고하고 추가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Choi, 2013).

우선 원자력 관리 기관 신뢰도를 종속 변수로 하고 삼원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 모형의 설명력은 약 14%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R^2 = .138$). 사회적 가치 지향은 원자력 관리 기관 신뢰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주관적 지식과 정치

적 성향은 모두 원자력 관리 기관 신뢰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주관적 지식이 높을수록 원자력 관리 기관에 대한 신뢰도 또한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수적인 정치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 응답자들이 진보적인 정치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 응답자들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 높은 원자력 관리 기관 신뢰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상호작용은 주관적 지식과 정치적 성향 간 상호작용이었다. F 계수를 바탕으로 추론할 때, 주관적 지식이 원자력 관리 기관 신뢰도에 행사하는 정적 영향력은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ure 1>은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 주고 있다.

<Figure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관적 지

식이 원자력 관리 기관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응답자들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각 집단의 평균값을 놓고 볼 때,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주관적 지식의 수준이 높은 응답자들이 가장 높은 신뢰도를 표명하였으며 ($M = 4.01, SD = 0.83$),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주관적 지식의 수준이 높은 응답자들이 그 다음으로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M = 3.21, D = 1.03$).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고 주관적 지식의 수준이 낮은 응답자들($M = 2.82, D = 0.913$)과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고 주관적 지식의 수준이 낮은 응답자들($M = 2.72, D = 0.87$)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 주관적 지식에 따른 원자력 관리기관 신뢰도의 평균 차이가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보다 극명했다. 즉, 주관적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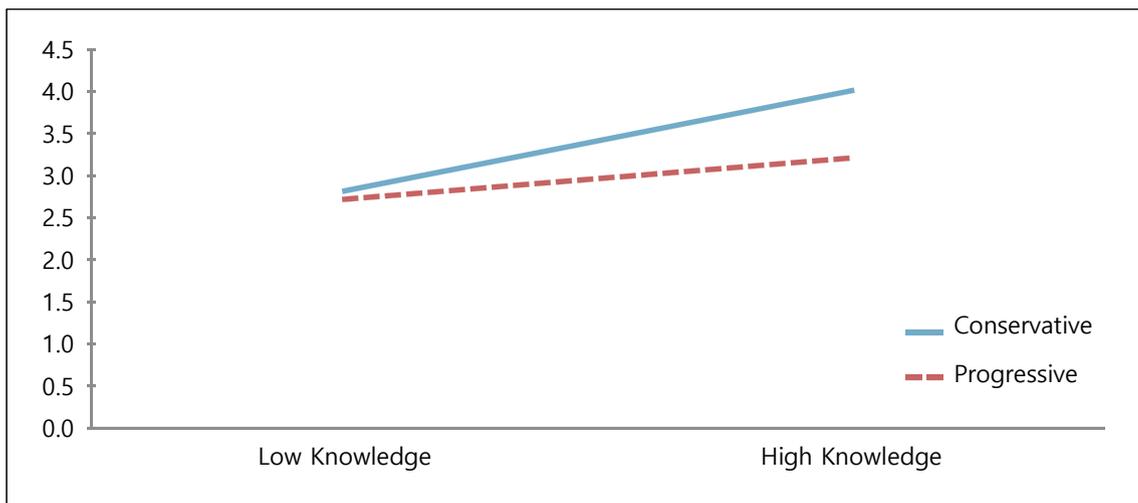


Figure 1. Interaction effects on trust in nuclear power-related agencies

식이 원자력 관리 기관 신뢰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모든 응답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었지만, 특히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 주관적 지식의 낮고 높음에 따른 원자력 관리 기관에 대한 신뢰도의 편차가 더욱 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번째로, 사회적 가치 지향, 주관적 지식, 정치적 성향이 원자력 발전기술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삼원변량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Table 6〉 참조).

통계 분석 결과, 사회적 가치 지향, 주관적 지식, 정치적 성향은 원자력 발전 기술 태도에 관한 변량의 약 8% 가량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 = .078$). 한편, 원자력 관리 기관 신뢰도 설명 모형과 비슷하게 주관적 지식과 정치적 성향

만이 원자력 발전 기술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설문 참여자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주관적 지식은 원자력 발전 기술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며,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지닌 참여자들이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지닌 참여자들 보다 원자력 발전 기술에 대한 태도가 훨씬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주관적 지식과 정치적 성향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관찰되었다. 앞서 원자력 관리 기관 신뢰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관적 지식이 원자력 발전 기술 태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력은 응답자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Figure 2)에서 보이듯, 보수적인 정치 성향과

Table 6. Three-way analysis of variance (Attitudes toward nuclear power technologies)

Source	Sum of Squares (SS)	Degree of Freedom (df)	Mean Squares (MS)	F
Model	82.045	7	11.721	6.899**
(Intercept)	8213.140	1	8213.140	4834.131**
Social Value Orientation(A)	2.328	1	2.328	1.370
Subjective Knowledge(B)	35.988	1	35.988	21.182**
Political Orientation(C)	46.476	1	46.476	27.355**
A X B	.549	1	.549	.323
A X C	1.024	1	1.024	.603
B X C	6.552	1	6.552	3.857*
A X B X C	.380	1	.380	.224
Error	975.220	574	1.699	
Total	10133.44	582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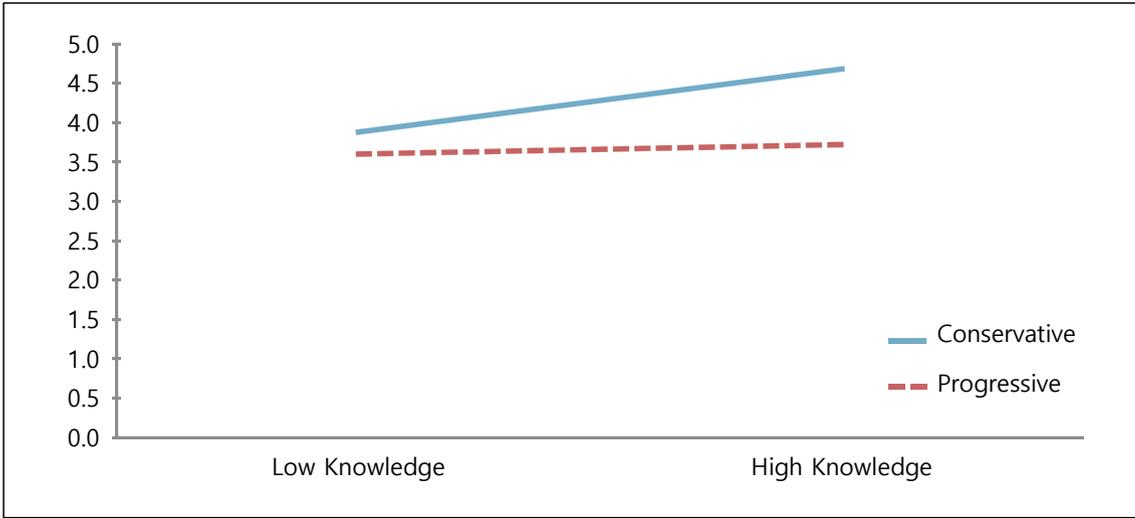


Figure 2. Interaction effects on attitudes toward nuclear power technologies

높은 주관적 지식을 갖고 있는 집단의 평균($M = 4.68, SD = 1.16$)이 가장 높았고, 그 뒤를 보수적 정치 성향과 낮은 주관적 지식 집단($M = 3.88, SD = 0.97$), 진보적 정치 성향과 높은 주관적 지식 집단($M = 3.72, SD = 1.25$), 진보적 정치 성향과 낮은 주관적 지식 집단($M = 3.60, SD = 1.13$)이 따랐다. 전반적인 양상은 앞서 원자력 관리 기관 신뢰도와 비슷하였다.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들 가운데서는 주관적 지식이 원자력 발전 기술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비교적 작게 나타났지만,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주관적 지식의 낮고 높음이 원자력 발전 기술 태도에 더욱 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 지향, 주관적 지식, 그리고 정치적 성향이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삼원변량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Table 7〉에는 사회적 가치 지향, 주관적 지식, 정치적 성향이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에 미치는 독립적, 상호작용적 영향에 대한 삼원변량 분석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전체적인 모델의 통계적 설명력은 약 12% 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R^2 = .112$), 앞서 원자력 관리 기관 신뢰도, 원자력 발전 기술 태도와 마찬가지로 주관적 지식이 높을수록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가 더욱 강하게 형성되었으며,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들이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들보다 더욱 높은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를 표명하였다.

한편,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와 관련해서도 주관적 지식과 정치적 성향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발견되었다(〈Figure 3〉 참조).

원자력 관리 기관 신뢰도, 원자력 발전 기술 태도와 마찬가지로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에 있어

서도 주관적 지식이 행사하는 영향력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수적

Table 7. Three-way analysis of variance (Intentions toward supporting pro-nuclear power policies)

Source	Sum of Squares (SS)	Degree of Freedom (df)	Mean Squares (MS)	F
Model	169.650	7	24.236	11.436**
(Intercept)	6553.975	1	6553.975	3092.703**
Social Value Orientation(A)	7.759	1	7.759	3.661*
Subjective Knowledge(B)	61.620	1	61.620	29.077**
Political Orientation(C)	92.905	1	92.905	43.840**
A X B	.004	1	.004	.002
A X C	.353	1	.353	.167
B X C	22.175	1	22.175	10.464**
A X B X C	.079	1	.079	.037
Error	1216.406	574	2.119	
Total	8330.111	582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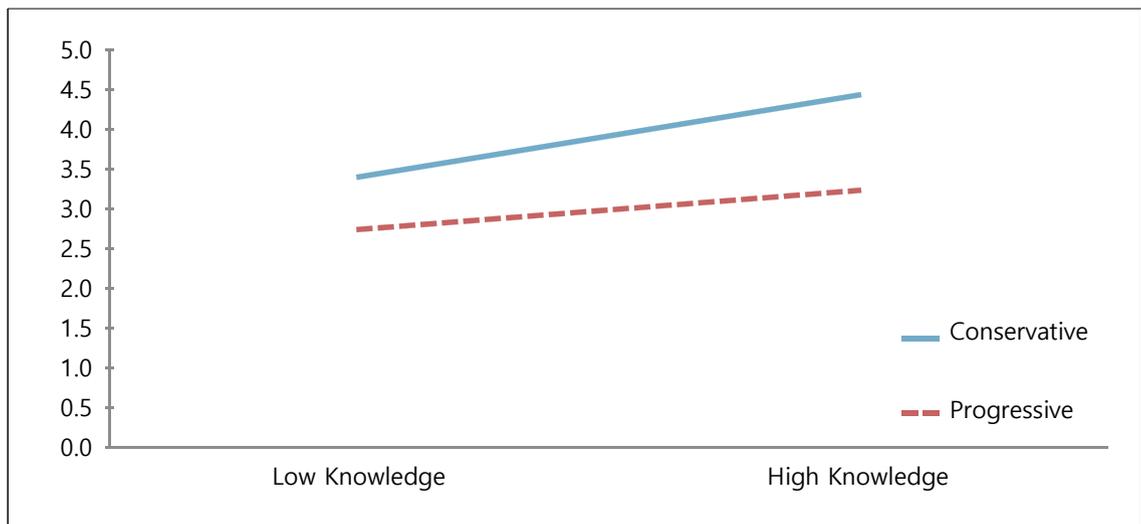


Figure 3. Interaction effects on intentions toward supporting pro-nuclear power policies

인 정치 성향을 가진 응답자들이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응답자들 보다 높은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를 표명한 가운데,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집단의 경우 주관적 지식의 낮고 높음에 따라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에 더욱 극명한 차이가 발견된 반면,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집단 사이에서는 그러한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게 발견되었다. 즉, 주관적인 지식이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졌을 경우 더욱 크게 발현된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검증되었다.

논의

본 연구는 최근 국가 에너지 정책 기조의 변화와 맞물려 점차 격화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 관련 사회적 논의와 개인적 차원에서의 심리적 반응 형성 과정을 이전과는 다른 이론적 시각과 관점에서 조망하고 분석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원자력 발전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의견 대립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여론 지형을 가치 지향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규정하고, 개인 심리적인 측면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 태도, 행동 등이 형성되는 동인과 기제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 때문에 본 연구는 특히 사회적 가치 지향, 주관적 지식, 그리고 정치적 성향에 분석적 초점을 두고, 그러한 가치 내재적인 개인 심리 변인들이 원자력 관리 기관 신뢰도, 원자력 발

전 기술 태도, 그리고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 등에 미치는 독립적, 상호작용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려 하였다.

먼저 논의되어야 할 부분은 주관적 지식과 정치적 성향의 독립적인 효과들이다. 본 연구 결과, 원자력 관리 기관 신뢰도, 원자력 발전 기술 태도,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에 공히 개인의 주관적 지식과 정치적 성향은 일관되게도 강력한 선행 요인으로서 작용하였다. 사실 이러한 결과들은 많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제안되거나 실증적으로 검증된 내용들이라서 특별히 새롭지는 않다. 원자력 발전 전반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지식이 높을수록 원자력 발전에 대해 해당 개인이 형성하는 인식, 태도, 행동 등은 긍정적으로 형성,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예를 들면, Chung et al., 2018; Ko & Kim, 2016; Lee et al., 2018).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주관적 지식은 원자력 관리 기관 신뢰도, 원자력 발전 기술 태도, 그리고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스스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태도, 행동 의도 등이 호의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관적 지식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중심 경로를 통해서 보다 정교화된 정보 처리 가능성의 제고, 부정적인 감정의 완화, 낙관적 편견의 발생 등으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Kim, 2019; Lee & Lee, 2011). 결국 원자력 발전에 대한 주관적인 차원의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해당 개인이 원자력 발전 관련 정보

나 메시지를 더욱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에 대한 위험 인식이 낮아지고 효용에 대한 가치의 평가는 제고됨으로써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심리적 반응이 긍정적이고 호의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대한민국의 특수한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 속에서 원자력 발전 이슈는 지속적으로 정치화, 이념화되었고, 원자력 발전에 관한 뉴스 보도마저도 각 언론사들이 표방하는 정치 색깔에 따라 편향적으로 구성되면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은 그들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 태도, 행동 등에 관한 효과적인 예측 변인이 되어 가고 있다(Kim, 2017; Lee et al., 2015). 본 연구의 결과도 이러한 선행 연구들과 동일선상에 있다. 경제 발전, 에너지 공급의 효율성 등 원자력 발전의 장점들은 주로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갖는 사람들과 더욱 용이하게 조응하고, 환경 파괴, 원전 사고 위험성 등 원자력 발전의 단점들은 주로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갖는 사람들에게 더욱 잘 수용된다는 점이 본 연구를 통해서도 재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갖는 개인들은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갖는 개인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 긍정적인 원자력 관리 기관에 대한 신뢰도, 원자력 발전 기술에 대한 태도,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를 표명하였다. 선행 연구의 결과와 비슷한 맥락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은 주로 보수적인 이념 가치와 더욱 잘 연결되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은 진보적인 이념 가치와 더욱 잘 양립 가능하기 때문

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언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상이하게 형성되어 온 원자력 발전 관련 뉴스의 논조와 선택적 뉴스 노출 등으로 인해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전반적인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심리적 반응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Park et al., 2014; Lee et al., 2015).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한민국에서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원자력 발전 관련 여론 지형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원만한 사회적 합의 도출의 지난함을 암시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원자력 발전 관련 이슈의 정치화, 이념화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본 연구는 국가 에너지 정책으로서의 원자력 발전이 태생적으로 가진 가치 내재적인 부분에 주목하여 사회적 가치 지향에 분석적 초점을 경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 지향은 주관적 지식과 정치적 성향에 비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반응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종속 변수별 삼원변량 분석 결과, 개인의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친자기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친사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높은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를 보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친자기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단기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가 강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친사회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공동체의 장기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가 강한 사람들을 의미한다(Bogaert et al., 2008; Van Lange & Liebrand, 1991). 이러한 결과는 지

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형성, 발전된 원자력 발전에 관련 거시 사회 담론 속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자력 발전을 옹호하고 찬성하는 측의 입장 속에서 원자력 발전은 다른 어떠한 전력 발전 방법들보다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논리는 개인적, 단기적 이익을 중시하는 친자기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원자력 발전이 다른 전력 공급 방식보다 가격 효율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를 납부해야 하는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개인적, 단기적 이익이 더 높은 대안이라고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원자력 발전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측의 논리는 주로 원자력 발전 기술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환경 파괴적인 요소와 원전 사고의 위험성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공동체적, 장기적 이익을 더 중시하는 친사회적 성향의 사람들에게 더욱 거부감 없이 수용될 수 있다. 추론컨대, 이러한 심리적 기제가 작용함으로써 친자기적 성향의 사람들과 친사회적 성향의 사람들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의 차이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판단해 본다.

원자력 관리 기관 신뢰도, 원자력 발전 기술 태도, 그리고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에 공히 주관적 지식과 정치적 성향 간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발견된 점은 흥미롭다. 신뢰도, 태도, 지지 의도의 모든 차원에서 일관적으로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관적 지식이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

데에서도 주관적 지식이 높은 사람들이 더욱 긍정적인 신뢰도, 태도, 지지 의도를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편차가 더욱 극적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각하는 원자력 발전 관련 지식이 높아질수록 신뢰도, 태도, 지지 의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증폭되는 확증 편향성(confirmation bias)을 더욱 강하게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Knobloch-Weterwick, Mothes, & Polavin, 2020). 보수적인 정치 성향의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기대나 이해관계에 따라 선별적 정보 탐색, 해석, 기억에 의존해 기존 태도 및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반면, 상충되는 정보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무시 또는 왜곡하는 경향이 더 강해 태도 양극화(attitude polarization) 현상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Kuhn & Lao, 1996).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어떠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도 보고된 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론적 기제를 체계화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추론해 보건대,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원자력 발전에 대해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이미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에 대한 주관적 지식이 이러한 선유 경향을 보다 증폭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후속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이론적 가정을 실증적으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안

본 연구의 결과는 원자력 발전 관련 여론의 복잡하고 미묘한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다양한 과정과 형식을 통해서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의 기저에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점차 정치화, 이념화, 가치내재화 되어 가고 있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겠다. 국가 에너지 정책으로서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는 당연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의견 교환과 숙의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가 보여 주는 현 상황은 이미 상당 부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정치화, 가치내재화 되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숙의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난맥을

풀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우선 본 연구는 전국적인 규모의 설문 조사를 설계하고 진행했지만, 전문 조사 업체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했기 때문에 표본 추출에 있어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확률적 표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밝힌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방법론적인 점에 있어서 구조방정식 등을 활용한 매개 모형 검증이 본 연구 결과가 미처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예를 들면, 사회적 가치 지향이 정치적 성향을 거쳐 원자력 관리 기관 신뢰도, 원자력 발전 기술 태도,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 등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후속 연구들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검증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References

- Alba, J. W., & Hutchinson, J. W. (1987). Dimensions of consumer expertis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3(4), 411-454.
- Alba, J. W., & Hutchinson, J. W. (2000). Knowledge calibration: What consumers know and what they think they know.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7(2), 123-156.
- Asplund, K., & Norberg, A. (1993). Caregivers' reactions to the physical appearance of a person in the final stage of dementia as measured by semantic differential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7, 205-215.
- Bogaert, S., Boone, C., & Declerck, C. (2008). Social value orientation and cooperation in social dilemmas: A review and conceptual model.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7(3), 453-480.
- Brucks, M. (1985). The effects of product class knowledge on information search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2(1), 1-16.
- Byeon, S. (2014). Interaction effect of usage of political pod-casts and political orientation on usages of TV, newspaper, and Internet.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8(6), 90-118.
- Cha, D. (2005). Understanding binge-drinking.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49(3), 346-372.
- Chang, S. (2016). Direction to generate the controversial structure of balanced atomic power for peaceful solution of conflict of atomic power.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17(4), 33-57.
- Chang, S., & Kim, J. (2014). Risk of choice without governance. *Kore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2(3), 1-24.
- Choi, H. (2013). *Social Science Statistical Analysis*. Paju: Nanam Communication.
- Choi, I. (2018). Korean public opinion on Shingori 5th and 6th nuclear power plant. *Civil Society and NGO*, 16(2), 3-28.
- Choi, T. (2018). Understanding representation in participatory and deliberative governanc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2(4), 501-529.
- Choi, Y. (2016). How do we deal with nuclear energy issues?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press releases and newspaper article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60(1), 229-262.
- Chung, W., Mok, J. W., & Kim, B. J. (2018). An experimental study of acceptance on nuclear energy.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28(4), 111-137.
- Eisenberger, R., Kuhlman, D. M., & Cotterrell, N. (1992). Effects of social values, effort training, and goal structure on task persistenc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6(3), 258-272.
- Han, D., & Kim, H. (2011). Risk and communication: Communication effects on social acceptance of nuclear power. *Crisisonomy*, 7(2), 1-22.
- Hershey, D. A., & Walsh, D. A. (2000). Knowledge versus experience in financial problem solving performance. *Current Psychology*, 19(4), 261-291.
- Hong, S. K. (2019). The acceptance of deliberative democracy in Korea.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96, 140-164.
- Hwang, S., Kim, H. J., & Chang, I. (2018). What factors are influential in public acceptance of nuclear energy?. *Journal of Practical Research in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11(4), 135-164.
- Hyun, S., & Moon, K. (2019). Analysis of the changes in the nuclear phase-outs policy.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30(3), 97-129.
- Jeong, H. J., & Chung, E. E. (2018). The study for the moderating effect of credibility about nuclear power safety regul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18(1), 79-127.
- Jin, H. J., & Han, D. H. (2014). Interaction between

- message framing and consumers' prior subjective knowledge regarding food safety issues. *Food Policy*, 44, 95-102.
- Jin, S. (2012). An analysis of Korean perceptions about nuclear power after the Fukushima accident.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24(4), 1011-1036.
- Joo, J. (2018). Nuclear power as a socio-technical imaginary and media discourse.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89, 81-118.
- Jueng, W. G., Jang, S. H., Ko, K. M., & Park, S. J. (2016). The nuclear energy issues and partisan journalism in Korea: Comparison and Chosun Ilbo and Hankyore. *Dispute Resolution Studies Review*, 14(2), 5-37.
- Kang, Y. (2012). Nuclear accidents, risk communication, and politics of expertise: Centered on Fukushima nuclear accident.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5(1), 35-44.
- Kang, E. (2018).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nuclear energy policy in Korea: Behavioral economics approach to discursive democracy surrounding Shin-Kori 56 nuclear power plant. *Cultural Interaction Studies of Sea Port Cities*, 18, 409-446.
- Kil, W. Y., Yoon, H. Y., & Lee, J. H. (2019). Factors affecting the change of perceptions of nuclear issues: A comparison among different types of online discussions. *Journal of Social Science*, 30(3), 181-210.
- Kim, B. J. (2020). Developing the policy mediation model for conflict resolution over nuclear energy: A case of emerging ICT and communicative actions. *Crisisonomy*, 16(4), 133-150.
- Kim, D. (2005). An empirical analysis of environmentalism and postmaterialism. *Environmental Sociology*, 9, 135-180.
- Kim, D., Chung, B., & Chang, J. (2013). A comparative analysis of social and personal level acceptance of nuclear energy: Centered on implications for building public relations strategie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7(5), 214-238.
- Kim, G. (2019).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objective levels of nuclear knowledge on nuclear acceptance: A focus on Internet user perception.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57(3), 261-295.
- Kim, H. J. (2017). How people choose what to read: The roles of prior attitudes and political tendency in selective exposure to nuclear energy information. *Journal of Public Relations*, 21(4), 56-78.
- Kim, H. J., & Lee, H. (2009). The effect of well-being consumer value orientations, the perceived value and brand preference on purchase intention of the environment-friendly cosmetic.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15(1), 327-341.
- Kim, I. (2012). The impact of risk perception of nuclear power, perception of knowledge, the use of communication channels, the third-person effect about nuclear accident on optimistic bias.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12(3), 79-106.
- Kim, I. S., & Park, Y. W. (2018). A study on moderating effects of governmental trust between policy perception-policy acceptance. *Regional Policy Review*, 29(2), 53-79.
- Kim, J., Kim, C., & Lim, C. (2012). Analysis of the risk perception of nuclear power plant and radiation.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3(8), 3570-3577.
- Kim, J. H. (2013). The effect of perceived risk, environmental value orientation and perceived psychological distance on environmental behavior. *The Korean Journal of Consumer and Advertising Psychology*, 14(1), 155-175.
- Kim, J. H., & Park, E. G. (2002). The effect of environmental value and perceived consequences on environmental behavior.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6(1), 19-34.

130 사회적 가치 지향, 주관적 지식, 정치적 성향이 원자력 관리 기관 신뢰도, 원자력 발전 기술 태도,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Kim, J. K. (2006). The effect of trust and social value orientation on cooperative behavior in social dilemma situation.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3), 31-44.
- Kim, K., & Yun, S. (2010). An Exploratory study on acceptability change of nuclear power as a responding solution to climate change as a result of framing effects and its policy implication.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and Administration*, 18(1), 91-129.
- Kim, S. (2015). Exploring attitude change in acceptance of nuclear power. *Crisisonomy*, 11(11), 295-321.
- Kim, S., & Cha, H. (2016). The effect of responsibility attribution message and emotion on the policy support and health behavior in obesity circumstanc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0(2), 369-398.
- Kim, W., & Lee, R. B. (2006). Post-materialism and democracy: A comparison of cultural changes in Korea and Japan. *Korean Party Studies Review*, 5(2), 89-124.
- Kim, W., Lee, C., & Cho, H. (2011). An analysis of the risk communication structure to resolve nuclear power-policy conflicts. *Dispute Resolution Studies Review*, 9(1), 5-66.
- Kim, W. Y., & Lee, D. H. (2005). A comparative study on the frame of various news media: A frame analysis of the domestic nuclear news.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19(4), 168-213.
- Knobloch-Westerwick, S., Mothes, C., & Polavin, N. (2020). Confirmation bias, ingroup bias, and negativity bias in selective exposure to polit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 Research*, 47(1), 104-124.
- Ko, D., & Kim, Y. (2016). A study on nuclear energy knowledge and policy acceptance. *Korea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26(1), 57-84.
- Kuhlman, D. M., & Wimberley, D. C. (1976). Expectations of choice behavior held by cooperators, competitors, and individualists across four classes of experiential gam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4, 69-81.
- Kuhn, D., & Lao, J. (1996). Effects of evidence on attitudes: Is polarization the norm?. *Psychological Science*, 7(2), 115-120.
- Kwon, T., & Jun, Y. (2015).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and its impact on nuclear energy policy in South Korea: Applying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53(4), 245-269.
- Lee, H. J., & Lee, Y. A. (2011). Psychological model of stigma on nuclear power plants and radioactive waste repositories.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0(3), 831-851.
- Lee, H. M., & Park, J. (2019).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selective media exposure and organization-public relationship (OPR) between the audience and Korea Hydro & Nuclear Power.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21(4), 236-272.
- Lee, H. M., Park, J., & Han, D. (2015). A bipolarization of public opinions: An empirical analysis on discourse competition of PR communication and biased news reporting on nuclear issues.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26(6), 233-261.
- Lee, J., Rhee, Y., & Cheong, Y. (2015). How political ideology influences prosocial behavior. *The Korean Journal of Consumer and Advertising Psychology*, 16(3), 415-432.
- Lee, K. (2011). The role of media exposure, social exposure and biospheric value orientation in the environmental attitude-intention-behavior model in adolescent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1, 301-308.
- Lee, M., Ahn, J., & Kim, Y. (2018). The effects on perceived risk,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and the acceptance of nuclear power caused by

- knowledge to nuclear power. *Journal of Practical Research in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11(3), 54-74.
- Lee, S. R. (2006). Nuclear energy policy and environmentalism.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17(1), 155-176.
- Lee, T. (2017). A topic modelling approach to nuclear energy issue frames in news articles and media partisanship. *Dispute Resolution Studies Review*, 15(3), 45-85.
- Lee, T., Kim, B. J., & Kim, I. S. (2015). A national survey of the policy customers' perceptions and beliefs of nuclear energy issues and agenda.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26(1), 299-323.
- Lee, Y. J., & Yeo, W. S. (2014). The effect of environmental awareness and consumption value by purchase intention of environment-friendly food materials.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28(6), 181-199.
- Lee, Y. K., Kim, M. S., & Choi, J. G. (2010). The impact of environmental objective and subjective knowledge on pro-environmental behaviors. *Korean Management Review*, 39(5), 1177-1198.
- Liebrand, W. B. G., & Van Run, G. J. (1985). The effects of social motives on behavior in social dilemmas in two cultur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1(1), 86-102.
- Lim, J., & Kim, J. (2020). Nuclear frame competition of the government and the news media through algorithm-based frame extrac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20(1), 151-190.
- Lim, S., & Kim, H. (2018). Agenda dynamics and nuclear energy policy in Korea.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21(1), 25-55.
- Messick, D. M., & McClintock, C. G. (1968). Motivational basis of choice in experimental gam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1), 1-25.
- Milbrath, L. (1984). *Environmentalists: Vanguard of a new society*.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Murphy, R. O., & Ackermann, K. A. (2014). Social value orientation: Theoretical and measurement issues in the study of social preferenc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8(1), 13-41.
- Murphy, R. O., Ackermann, K. A., & Handgraaf, M. (2011). Measuring social value orientation.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6(8), 771-781.
- Nam, M., Wang, J., & Lee, A. Y. (2012). The difference between differences: How expertise affects diagnosticity of attribute alignability.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9(4), 736-750.
- Oh, I. (2017). *A study on trust and acceptability on nuclear energy poli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Osgood, C. E., Suci, G. J., & Tannenbaum, P. H. (1957). *The measurement of meaning*. Urbana, IL: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Park, C., & Kim, S. (2015). The role of knowledge in acceptance of nuclear power: A focus on objective and subjective knowledg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53(3), 117-150.
- Park, C. K., Hwang, C. H., & Kim, D. H. (2017). Analysis of public perception of nuclear power generation reflected in the tim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adiology*, 11(6), 483-491.
- Park, J., & Lee, H. M. (2018). A study on the effects of news exposure and nuclear energy risk perception on attitudes toward Japanese products. *Broadcasting & Communication*, 19(4), 87-115.
- Park, J., Lee, H. M., & Han, D. (2014). A comparative analysis of news frames across different media outlets: News coverage of the blackout accident at the nuclear power plant in Gori.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14(2), 31-74.
- Park, O. L., & Jeong, Y. J. (2006). Value orientation and pro-environmental clothing consumer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8(3), 1135-1146.

132 사회적 가치 지향, 주관적 지식, 정치적 성향이 원자력 관리 기관 신뢰도, 원자력 발전 기술 태도,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Park, S., Chang, J. S., & Kim, C. (2017).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acceptability of nuclear power plant: Focused on Uljin area. *Dispute Resolution Studies Review*, 15(3), 5-43.
- Roh, J., & Min, Y. (2012). Effects of politically motivated selective exposure on attitude polarization: A study of non-political online community user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6(2), 226-248.
- Sen, S., & Bhattacharya, C. B. (2001). Does doing good always lead to doing better? Consumer reactions t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38(2), 225-243.
- Shin, H., Keum, H., & Chung, S. (2012). The effects of gain and loss frames on individuals' perceptions of nuclear energy issue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6(5), 190-215.
- Sohn, Y., & Lee, B. (2012). An efficacy of social cognitive behavior model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6(6), 127-161.
- Song, H., & Kim, W. (2015). Effects of trust through multidimensional approach on risk perception and risk acceptability of nuclear power plant. *Journal of Political Communication*, 36, 37-60.
- Song, H., & Lee, C. (2015). The influence of temple stay experience on forming visitor's behavioral intention. *Korea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30(6), 303-322.
- Stoutenborough, J., Sturgess, S., & Vedlitz, A. (2013). Knowledge, risk and policy support: Public perceptions of nuclear power. *Energy Policy*, 62, 176-184.
- Sutterlin, B., Brunner, T. A., & Siegrist, M. (2013). Impact of social value orientation on energy conservation in different behavioral domain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3(8), 1725-1735.
- Van Lange, P. A. M. (1999). The pursuit of joint outcomes and equality in outcomes: An integrative model of social value ori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2), 337-349.
- Van Lange, P. A. M., & Liebrand, W. B. G. (1991). Social value orientation and intelligence: A test of the goal prescribes rationality principl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1(4), 273-292.
- Wang, J. (2013). Trust and acceptance of nuclear energy. *The Korea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22(3), 235-267.
- Wood, S. L., & Lynch, J. G. (2002). Prior knowledge and complacency in new product learn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9(3), 416-426.
- Yang, Y., & Yoon, J. H. (2013). The effec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rporate reputation, and social value orientation on brand attitude. *The Korean Journal of Consumer and Advertising Psychology*, 14(3), 409-426.
- Yoo, Y., & Kim, S. (2015). Value, experience, and perception. *Crisisonomy*, 11(8), 179-201.
- You, S., Park, H., & Jin, B. (2016). An application of the extended parallel process model to protective behavioral intention against the MERS.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18(2), 237-273.
- Yun, S. (2018). Issues and challenges for the resolution of social conflicts surrounding nuclear energy policy: Focusing on the evaluation of public discourse on Shingori 5 and 6. *Economy and Society*, 118, 49-98.

최초 투고일 2020년 12월 31일
논문 심사일 2021년 02월 21일
논문 수정일 2021년 04월 30일
게재 확정일 2021년 06월 02일

An Analysis for Effects of Social Value Orientation, Subjective Knowledge, and Political Orientation on Trust in Nuclear Power-Related Agencies, Attitudes toward the Nuclear Energy Technology, and Intentions to Support Pro-Nuclear Energy Policies*

Hyung Min Lee

Ph.D. Associate Professor, Sungshin Women's University**

Jin Kyun Lee

Ph.D. Associate Professor, Hongik University***

Objectives

Against the backdrop of heated controversies and conflicts over nuclear energy issues in South Korea, this study looked into the independent as well as interdependent effects of social value orientation, subjective knowledge, and political orientation on trust in nuclear power-related agencies, attitudes toward the nuclear energy technology, and intentions to support pro-nuclear energy policies.

Methods

A nation-wide survey was administered, resulting in 582 samples. A series of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as well as three-way analysis of variance were conducted for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The findings revealed that subjective knowledge is positively related to all the dependent variables. Also, people who have conservative political orientation are likely to have significantly more positive trust, attitudes, and intentions, compared to those who have progressive political orientation. Social value orientation is significantly related to intentions to support pro-nuclear energy policies, while pro-selfs reported more such intentions than pro-socials. Interaction effects between subjective knowledge and political orientation are found and discussed as well.

* This research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2018 Sungshin Women's University Research Grant.

** First Author: hmlee@sungshin.ac.kr

*** Corresponding Author: feature94@hongik.ac.kr

- 134 사회적 가치 지향, 주관적 지식, 정치적 성향이 원자력 관리 기관 신뢰도, 원자력 발전 기술 태도, 친원자력 정책 지지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Conclusions

This study shed light on the nuanced as well as complicated mechanism of individuals' psychologies regarding nuclear energy.

KEYWORDS Nuclear energy, Public opinion, Social value orientation, Subjective knowledge, Political Orientation